

사회

벼랑끝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 상 고학력 '보따리 장사'

# 이 대학 저 대학 돌며 월수 80만원 점심 김밥으로 떼우고 밤엔 '알바'

최근 생활고와 교수채용 탈락에 따른 좌절감으로 조선대 시간강사 서모(45)씨가 세상을 등졌다. 광주·전남지역 시간강사는 무려 1500명. 시간강사들의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 강의 없는 방학기간 막노동이라도 해야

정작 두려운 것은 방학인 7·8월. 강의가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예전에는 대리운전이나 학원강사도 했지만 보는 눈이 많아 지난해부터는 서울에서 일했다. 올해도 서울에서 이삿집센터나 막노동 일이라도 해볼 심산이다.

지난 2003년 영어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B(40)씨. 그는 광주의 한 사립대에서 시간당 약 2만원의 강사료를 받고 8년째 활동하고 있다. 일주일에 10시간을 강의하지만 한 달 수입은 고작 80만원. 식비와 기름값을 빼면 5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집사람이 매월 버는 150만원의 수입이 없다면 생계 자체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전 9시에 출근에 오후 6시 퇴근한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A4 용지 1장당 1만원을 받는 번역 아르바이트를 위해서다. 커피 서너

잔을 마시며 번역하다 지쳐 급세 침대에 눕고 만다.

올해 30년 경력의 시간강사 C(56)씨는 현재 대학 3군데에서 매주 18시간 강의를 하는 베테랑급 강사다. 실력을 인정받은 탓도 있지만 거의 매일 야간수업을 하기 때문이다. 한 달 평균 수입은 200만원 정도다. 다른 강사들에 비해 많지만 50대 가장의 평균 소득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학비가 부족해 아들들을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하고 지방 국립대에 진학시켰다. 가정 형편을 아는 지라 자식들도 모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부인(55)이 분식집 체인점과 보험영업업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김씨는 지난 30년 동안 서울·수원·남원·목포·순천 등 강의가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시간강사 김모(46)씨는 "생계는 물론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주위의 가까운 농촌과 패배감, 요원하기만 한 교수의 길을 생각할 때면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승헌기자 yang@kwangju.co.kr /김홍기기자 kimho@kwangju.co.kr

# 논문대필·채용 뒷돈 수사

## 경찰, '자살 시간강사' 이메일서 일부 확인

'대학 시간강사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서모(45)씨의 이메일 및 컴퓨터 분석을 통해 '채용 뒷돈' 제공 요구 및 논문대필 의혹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3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 서씨의 자택 컴퓨터 본체를 확보하는 한편, 서씨가 유서를 통해 자신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언급한 이메일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서씨의 이메일 분석을

통해 서씨가 'A씨의 논문을 수정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견하고 서씨가 제기한 논문대필 의혹과의 연관성을 캐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지난해 11월 29일 "교수님! 논문(A씨) 1차 수정본입니다. 오늘 A씨를 만나서 작업한 후에 프린트물만 1차로 남겼습니다. (중략)"라는 내용의 메일을 지도교수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문제의 메일을 토대로 ▲서씨와 A씨의 관계 ▲서씨가 A씨의 논

문을 수정하게 된 경우 ▲A씨 논문수정 참여 정도 ▲지도교수의 논문수정 지시 여부 등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또 서씨 컴퓨터에 저장된 논문 파일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논문대필 의혹 등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서씨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대부분 서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논문 파일로 채워져 있었다.

앞서 서씨는 지난 25일 유서를 통해 "교수님에게 당한 종의 흔적은 내 e-mail에 일부 있고..."라고 밝힌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서씨가 유서에서 언급한 서씨의 지도교수는 지난 28일 서씨의 자살과 관련,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학과장직을 자진사퇴했다. /김홍기기자 kimho@kwangju.co.kr

# 선거막판 폭력 난무

여수 신순범 전 의원 피한들에 맞아 입원

해남선 후보 운동원간 유세장 폭력 사태



30일 신순범 전 의원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6·2 지방선거 운동이 종반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등 막판 선거전이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30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노래자랑 행사가 열린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무소속 김충석 여수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신순범 전 의원(77)이 지인 진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

경찰은 신 전 의원이 오른쪽 가슴에 타박상을 입고 여수 시내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을 확인,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진씨가 "민주당원(고문)으로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고 비난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측 선거운동원들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 신 전 의원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해남군수 후보들의 유세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철환 민주당 해남군수 후보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오전 문내면 우수영 5일장에서 유세 도중 상대 후보의 운동원이 폭언과 함께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고발로 경찰은 폭행당한 연설원 윤모(47)씨,

## 승려가 토막살인

### 술집 여종업원 암매장

40대 승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수경찰은 30일 유형업소 여종업원을 사할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자 살해한 뒤 암매장한 여수 모사찰 스님 조모(42)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여수시 화양면 모사찰 안방에서 H유형주점 여종업원 A(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사찰에서 70m 떨어진 인근 야산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날 새벽 3시께 여수시 화동 H유형주점에서 A씨와 술을 마신 뒤 사할로 유인해 A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사찰 인근 기지국에서 잠깐 잡히고 A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조씨인 점으로 미뤄 조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5·18 30주년 나눔장터 5·18 민중항쟁 30주년과 전남대병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나눔장터'가 3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전남대병원 의료진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나원침 (8034) 김중두



## 승합차 추락 2명 사망

30일 오전 11시40분께 나주시 다도면 중흥골드스와 입구 내리막길에서 김모(78)씨가 몰던 그레이스 승합차가 도로 옆 1m 아래 고추밭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김모(71)·윤모(89)씨가 숨지고 운전자 김모(78)씨 등 3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지점은 'ㄱ'자 형태의 급커브길로, 곡선도로의 각도가 70~80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뺑소니범 범퍼 조각 때문 '덜미'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승용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승용차 부품때문에 덜미.

○...3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8)씨는 전날 새벽 1시45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 바다에 누워 있던 김모(39)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나려는 것.

○...이씨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산동교 방향으로 가던 중 술 취해 누워 있던 김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10cm 크기의 범퍼 조각을 발견한 뒤 차적조회를 통해 이씨를 검거.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www.hanbitgosi.com

개강 ▶ 6월 1주

한빛고시학원

## 압도적 1위 시설 합격을 강사진

# 79=공무원 종합이론반 주·야간반 개설

전국유일 79= 단독반 매월 짝/홀수반 개강

7.4=합격문제풀이, 기능직실면직권면학, 소명직합격전문특강

심화반과 |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23차, 24차, 25차, 26차, 27차, 28차, 29차, 30차, 31차, 32차, 33차, 34차, 35차, 36차, 37차, 38차, 39차, 40차, 41차, 42차, 43차, 44차, 45차, 46차, 47차, 48차, 49차, 50차, 51차, 52차, 53차, 54차, 55차, 56차, 57차, 58차, 59차, 60차, 61차, 62차, 63차, 64차, 65차, 66차, 67차, 68차, 69차, 70차, 71차, 72차, 73차, 74차, 75차, 76차, 77차, 78차, 79차, 80차, 81차, 82차, 83차, 84차, 85차, 86차, 87차, 88차, 89차, 90차, 91차, 92차, 93차, 94차, 95차, 96차, 97차, 98차, 99차, 100차

#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북구청앞 062-234-0234)